



2021년 11월 7일(제1060호) 안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 ‘할 수 없다’ 리는 핑계”

군중 신부로서 다시 군복을 입게 된 것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훈련소 입대 전 여러모로 혼재되어 있는 감정과 함께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치니 마음이 더 혼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혼잡함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은 훈련소에 가기 전 대기하며 군에 오기 전 보좌 신부로 있었던 곳의 상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적거렸던 성당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조용해졌고, 다음 신부님께서도 사목하시기에 쉽지 않은 환경으로 급작스럽게 바뀌어 버린 그런 씁쓸한 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몸담았던 성당만이 아닌 그 시절 그때, 또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은 모든 성당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추억의 시간이고,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다시 올까?’라는 물음표 안에서 지금도 과거를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다수의 교구가 비대면의 일상화 안에서도 신자와 신자 간의 연결점을 찾고 각 공동체의 활기를 위해 또 개개인의 신앙적 탄력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종교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누군가 하고 있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무엇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지 마라.’라는 핑계 아래 신앙적 증진을 위한 노력도 놓아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실천들도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구가 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냐?’, ‘아, 이런 건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건 못하니까 수녀님께서 해주시면 참 좋겠어.’라는 식의 말들을 방패 삼아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복음을 떠올려 봅시다. 오늘 복음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많은 돈을 내었지만,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넣은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오늘의 복음은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좁은 의미 아래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을 얼마만큼 하느님께 내놓았는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내 정신과 마음, 신앙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하느님께 얼마만큼 봉헌하고 있는가와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 부자들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떠한 이유를 붙이며 하느님께 마음을 내놓지 않고, 신앙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의 내용을 실천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꼭 평신도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평신도분들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자분들이 지니신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복음 속 과부와 같이 세상 안에서 봉헌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요.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평신도분들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될 테니 더더욱 큰 기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끝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시는 평신도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실천은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성령께 청하며 이번 한 주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박재우(미르힐리노) 신부  
장성(6시터)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1열왕 17,10-16  
**회 답 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 시** 히브 9,24-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마르 12,38-44  
**영 성 제 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열한 번째 시한

밤에도 포졸들이 신부님들을 매우 신임하여 마음놓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하였고, 말에 태워 조심스럽게 끌고 갔습니다.

서울에 끌려온 신부님들은 존경하올 주교님을 뵙고 나서 모두가 같은 의금부(義禁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많이 받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용감히 참아 견뎌냈고, 지극히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주 그리스도를 용감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저버리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놀라 큰소리로 하느님을 증언하였고, 다른 신자들을 신고하라는 강요를 당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또다시 참을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벌을 극복하고 사형을 선고받아 1839년 9월 21일(음력 8월 14일)에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함으로써 하늘 나라로 개선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죽음을 당한 후에도 신자들은 2년 동안 더 박해로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박해가 4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 동안 신자들은 비참과 가난에 쪼들리고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었으며, 박해뿐 아니라 무수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4년 전부터 좀 멈추고 있지만 아직 평온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신자들이 실제로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고, 또 신자들을 살해하려고 수색하는 적극적 박해는 없지만, 신자들이 예전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졸들은 신자들의 집이라는 혐의가 잡히기만 하면 즉시 그 집을 점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은 모진 박해를 당한 끝에 맥이 빠져 열성이 식어져서 대다수가 냉담자들이 되었는데, 예전과 같은 열성과 상태로 돌아올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점차 열성이 오르고 그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은 참회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인들에게 아무도 설교한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교 구 일 립

###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총회 군중교구 시노드 준비위원 명단

#### ◆ 교구 시노드 준비위원 - 시제 5명

- 김용한 신부(태극 성당)
- 유충현 신부(화랑대 성당)
- 정천진 신부(성례오 성당)
- 김혁민 신부(해병중앙 성당)
- 전성주 신부(철성대(공군) 성당)

#### ◆ 교구 시노드 준비위원 - 평신도·수도자 11명

- 박인호 라우렌시오(교구 평협회장)
- 심영희 베네딕다(테레사회 회장)
- 황라연 헬레나(테레사회 육군총무)
- 오광주 슬임수산나(테레사회 해군총무)
- 강석경 아네스(테레사회 공군총무)
- 김건표 바오로(부사관 대표)
- 윤선미 로즈마리 수녀(수도자 대표, 수녀연합회 회장)
- 채진영 필리아 수녀(수도자 대표, 군중교구 선교교)
- 이다원 사도요한(육군 병사 대표)
- 김태환 루카(해군, 해병대 병사 대표)
- 손정훈 미카엘(공군 병사 대표)

상화이야기

사렘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



루이스 헤르산트, 1850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14x133cm / 앙기스 미술관, 프랑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사렘타의 과부는 후에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한다. 이에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고’, 이 부르짖음에 하느님이 응답하시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다.

본 그림에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과부에게 안겨주는 엘리야와 과부의 모습이 나온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계단은 아마도 엘리야가 기도를 올린 옥상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엘리야의 팔에 안긴 사랑스러운 아기와 아이를 향해 달려가듯 하는 과부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왼쪽 상단 부분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엘리야, 아이, 그리고 과부의 몸짓이 만들어내는 선과 평행을 이룬다.

이 부분이 인상적인데, 우리는 흔히 빛은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과부의 손짓과 엘리야의 울부짖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상의 빛은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기도 없이는 완성되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이 빛을 받고, 은총과 기적으로 승화시키는 수단, 즉 빛이 발현되는 수단으로써 쓰이는 것이다.

김은혜(엘리야빛)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2주일: 비승 상주형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 사제 평의회 / 참사회의  
    때: 11월 9일(화)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추계 상임 위원회의 (ZOOM 화상회의)  
    때: 11월 10일(수) 15:00
- 광성대, 은하수, 비성대, 토성대, 무열대, 성바실리오, 충무, 강철 성당 신부 방문  
    때: 11월 11일(목)

◆ 군중교구 교육국 직임 모집

- 자격 : 영상 촬영 및 음향 기술, 영상 편집 가능자, 운전면허(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11월 10일(수)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gunjong.or.kr) 참조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진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